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41

부부는 전생에 서로 빛진 인생

[원문] 극락당전만월공(極樂堂前滿月容) 옥호금색조허공(玉毫金色照虛空) 약인일념칭명호(若人一念稱名號) 경각원성무량겁(頃刻圓成無量劫) - 지리산 천은사 극락전

[번역] 극락당 앞에 만월 같은 아미타불 얼굴 옥호와 금빛 얼굴은 허공을 비추는구나. 사람들이 일념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다면 잠깐 사이에 한량 없는 큰 공덕을 이루리다.

[신해(禪解)] 오늘날 부부의 이혼율이 열 쌍 중 두 쌍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도 이혼율은 서구(西歐)를 앞지르지도 모른다. 참으로 요지경 세상이다. 더욱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차츰 줄어들어 앞으로 몇 십 년 후에는 노인 인구가 젊은 세대보다 많을 것이라고 하니, 참으로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지 모른다. 남편이 아내를 위하고 아내가 남편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어찌 이혼을 할 수 있겠는가? 참으로 총체적 난국인 셈이다.

근세의 큰스님이었던 경봉 스님의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어느 날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티격태격 싸우던 부부가 통도사 극락암 삼소굴(三笑窟)에 거쳐하고 계시던 경봉 스님을 찾아 왔다.

“스님, 저희 부부는 금실이 좋다가도 어떤 작은 일에도 싸우곤 합니다.”

“허허. 그래. 아이는 맺을 낳았소?”

“아들 둘에 딸 하나입니다.”

“그래, 금실이 좋으니 그만큼 아이들을 낳았지.”

부부는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혔다.

경봉 스님은 부부의 안면을 잔잔히 살피시고는 대뜸 남편에게 물었다.

“그런데 말이다. 너는 네 마누라 몇 번 업어주었노?”

“네. 한 번도... 업어주지 못했습니다.”

“봐라. 네 마누라는 아이 셋을 낳는 동안에 세 번 죽다가 살아났는데, 한 번도 업어 주지 못했으면서도 뭐가 그리 잘 낳았나 마누라 구박하노.”

남편은 그 순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봐요. 역시 우리 스님 말씀은 명언(名言)이야.”

부인은 경봉 스님의 말씀에 맞장구쳤다.

그 때 그 모습을 지켜본 경봉 스님이 다시 부인을 나무랐다.

“너는 뭐가 좋다고 소리치노? 금쪽 같은 아이 셋과 마누라 먹여살려 왔지 않느냐?”

그제야 남편은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

그 순간 경봉 스님이 파안대소(破顏大笑) 했다.

“이제 싸우지 말고 서로 존경하며 살아야 한다.

부부는 전생에서부터 서로 빛진 인생이다.”

부부가 극락암을 내려갈 때 스님이 마중 나와 다시 일렀다.

“대문 밖에 나서면 거기는 돌도 많고 물도 많으니 물렁이에 채여서 넘어지지 말고 물에 미끄러져 웃도 버리지 말고 잘 돌아 가거라.”

이 법문은 당대의 선지식이셨던 경봉 스님이 하신 법문이다. 이 법담 속에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알아듣기 쉬우면서도 인생의 깨달음이 가득 들어 있다.

경봉 스님이 매일 싸우는 부부를 두고 코믹하게 생활법문을 들려주어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준 것은 바로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알고 느껴라’ 하는 뜻에 있다.

조선 숙종 때 단유 선사가 절을 중수할 무렵 절의 생각에 큰 구렁이가 자주 나타나 사람들을 무서움에 떨게 하였으므로, 이에 한 스님이 용기를 내어 잡아 죽였으나 그 이후로는 샘에서 물이 솟지 않았다. 그래서 ‘샘이 숨었다’는 뜻으로 천은사(泉隱寺)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그런데 절 이름을 바꾸고 가람을 크게 중창은 했지만 절에는 여러 차례 화재가 발생하는 등의 불상사가 끊임없이 일어났다고 한다. 마을사람들은 입을 모아 절의 수기(水氣)를 지켜주던 이무기가 죽은 탓이라 하였다.

얼마 뒤 조선의 4대 명필가의 한 사람인 원고 이광사(李匡師, 1705~1777)가 절에 들렀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자 이광사는 마치 물이 흘러 떨어질 듯한 필체(筆體)로 ‘지리산 천은사’라는 글씨를 써 주면서 이 글씨를 현판으로 일주문에 걸면 다시는 화재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 하였다.

사람들은 의아해 하면서도 그의 말을 그대로 따랐더니 과연 신기하게도 이후로는 화재가 일지 않았다고 한다.

그럼 주련의 내용속으로 들어가 보자.

‘극락당전만월공 옥호금색조허공: 극락당 앞에 만월 같은 아미타불 얼굴, 옥호와 금빛 얼굴은 허공을 비추는구나.’

지금의 자기 행복을 스스로 알고 감사하라 부처님 명호 부르면 한량없는 큰 공덕 이룬다

우리 인생은 문밖만 나서면 수많은 ‘돌과 물’을 만난다. 물렁이와 물에 걸려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모를 사람은 없다. 하지만 여기에서 상징하는 ‘돌과 물’은 부부가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 고뇌들이 아니겠는가. 부부란 일심동체여서 이러한 위험을 함께 잘 극복하고 잘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부는 그러한 큰스님의 지혜의 경구(警句)를 귀담아 들었는지, 아닌지 나는 잘 모르겠다.

오늘 주련 여행은 지리산 천은사이다. 지리산의 가을은 붉은 단풍으로 인해 절경이다. 한 번쯤 저든 입장을 벗어나, 물 깊고 산 깊은 지리산으로 발길을 되돌려 보자.

천은사는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의 말사로 화엄사, 쌍계사와 함께 지리산 3대 사찰 중의 하나로 꼽히는 곳이다.

신라 때 도선 국사가 창건하고 신라 중기인 828년(흥덕왕3) 인도의 덕운(德雲) 스님이 중국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와 명산을 두루 살피던 중 지리산에 들어와 천은사를 중수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자세하지 않다.

처음 이름은 감로사였다고 하는데 천은사로 이름이 바뀌어진 것은 다음과 같은 전설 때문이다.

여기에서 극락당은 아미타불을 주불로 모신 사찰 전각이며 옥호는 부처님의 32상(相) 중의 하나로 두 눈썹 사이에 있는 희고 빛나고 있는 가는 털이다. 또한 금색도 32상(相)의 하나로 부처님 몸에서 발하는 금빛을 일컫는다. 이는 부처님의 위대한 표상(表象)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극락당에 있는 아미타불의 얼굴은 마치 만월 같으며 그 상은 언제나 옥호와 금색으로 빛나 허공을 항상 비추고 있다는 말씀이다.

‘약인일념칭명호 경각원성무량공: 사람들이 일념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다면 잠깐 사이에 한량없는 큰 공덕을 이루리다.’

위대한 부처님을 일념으로 마음속에 새기고 끊임 없이 부처님과 보살의 이름을 외운다면, 참나에도 많은 공덕을 이루어 큰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도 부처님을 잊지 말고 언제나 일심(一心)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무한한 공덕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천은사 극락당 주련 속에 담긴 뜻이다.

■ 조계종 원로의원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혈맥론 41

깨달음의 성품알면 부처마음

[원문]

自西天二十八祖 只是傳佛心印 吾今來此土 唯傳頓教大乘即心是佛 不言戒施 精進苦行. 乃至入水火登於劍輪 一食長坐不臥 盡是外道有為法. 若識得施為運動靈覺之性 汝即諸佛心. 前佛後佛只言傳心 更無別法. 若識此法 凡間一字不識亦是佛 若不識自己靈覺之性 假使身破如微塵 覺佛終不得也. 佛者亦名法身 亦名佛心. 此心無形相 無因果 無筋骨 猶如虛空 取不得 不同質界 不同外道. 此心 唯如來一人能會 其餘眾生迷人不明了.

서천(인도)의 28조사스님들도 오직 심인(心印)을 전하였고 내가 지금 이 땅에 온 것도 오직 ‘마음이 곧 부처’라는 돈교(頓教) 단박 깨달도록 이끄는 가르침을 전하려는 것이지, 계행을 지키고, 정진을 하며, 고행을 하는 것과 불이나 물에 뜨는 것과, 약마를 항복받기 위해 칼을 사용하는 법과, 한 끼만 먹고 오랫동안 굶지 않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런 것은 모두 도가 아닌 유훈의 법이 아니라. 분별하고 움직이는 신령스런 깨달음의 성품을 알면 그대의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니라. 앞서 깨달은 부처님과 뒤에 깨달은 부처님이 오직 마음을 전하는 말씀을 하셨지, 달리 다른 법을 말씀하시지 않았으니. 이 마음을 알면 글자 한 자 몰라도 역시 부처이니라. 자기의 신령스런 성품을 알지 못하면 설사 몸이 부서져 먼지가 되더라도 부처는 끝내 될 수가 없느니라. 부처란 법신이라고도 하고 마음을 깨달은 이라고도 하느니라. 이 마음은 형상이 없으며, 인과가 없으며, 힘줄이나 뼈가 없으며, 마치 허공과 같아서 취할 수가 없으니, 물질의 세계와 같지 않으며, 외도와 같지도 않느니라. 이 마음은 여래만이 아니고 그 밖의 중생과 미혹한 사람은 분명히 알지 못하느니라.

[해설] 인도의 28 조사스님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오직 이 우주가 하나의 마음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 제자로서 부처님께서 전하신 하나의 마음 도리를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깨달아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얘깁니다. 많이 먹고 풍족해서 고통이 없으면 수행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일체가 괴로움의 연속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진을 통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분별하고 움직이는 신령스런 깨달음의 성품을 알면 그대의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니라.’ 모든 것을 분별하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바로 그 순간이 부처입니다. 일체가 마음의 작용으로 인해서 움직이고 나타나고 멸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이 곧 부처다 이런 얘깁니다. 과거에 깨달은 분, 미래에 깨달을 분들도 오직 우주는 하나의 마음으로 된 것을 일러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고통의 원인은 집착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양 집착하는 가운데 고통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주가 다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너도 나도 끊어지고 내 것, 내 것 구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 것, 네 것을 따지다 보니 아픔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인양 꼭 붙잡지만, 그것이 나갈 때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외형적인 부분이 아니라 마음을 보고 가까이 하다가 상대가 변했을 때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나와 상대가 없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 고통의 원인입니다. 집착으로 인해 미움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마음 도리를 알면 글자를 몰라도 된다는 얘깁니다. 실제 해는 스님도 글자를 전혀 몰랐던 분이



송나라 양해(梁楷) 작. '소우도(笑悟圖)'

입니다. 그런데 <금강경>의 일부분을 들고 도를 깨쳐버렸습니다. 글자를 알아 유식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품만 보면 걸림이 없습니다. 일체가 마음으로 되어있는 자리를 밟고 수행을 하면 만나기 어려운 법을 만난 것이고, 그것을 모르면 법을 못 만난 것입니다.

‘자기의 신령스런 성품을 알지 못하면 설사 몸이 부서져 먼지가 되더라도 부처는 끝내 될 수가 없느니라.’

오직 성품을 알고 닦으면 성불 할 수 있지만, 하나의 도리를 모르고 한다면 어떠한 고행을 하더라도 성불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부처란 법신이라고도 하고 마음을 깨달은 이라고도 하느니라.’

내 마음 밖에 무언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모두 외도(外道)입니다. 나누면 모두 외도입니다. 하나로 보고 행 했을 때 정도입니다. 도(道)는 문자·언어가 들어진 자리입니다.

‘이 마음은 여래만이 아니고 그 밖의 중생과 미혹한 사람은 분명히 알지 못하느니라.’

일체가 마음으로 된, 생사가 없는 도리라는 것은 성품을 본 사람만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신화같은 기적을 일으켜 화제가 되고 있는 대체의학의 선구자 삼봉(삼봉) 스님은 어떤 분인가?

7대 전수 한의이신 조부님 강요에 못이겨 13세부터 6경신 정진수련에 입신해서 79세가 되신 지금까지도 육경신 정진수련을 하시면서 인간은 출생하면서 가는 날은 이미 정해졌다 하지만 사는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잠든 듯이 가는 길은 없을까 하는 일념으로 수련중에 깨우침이 있어 이 세상에 내어 놓은 것이 천의선도입니다.

천의선도 불로장생하는 하늘의 의술이며 선도란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면서 신선의 반열에 오르는 길입니다. 천의선도를 전수받고 열심히 수련하다 보면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합장하고 있던 두 손이 밑에서 벌여지고 위에서는 잡아 당기는 느낌이 드는 신비 속에 접어들면 몇 시간을 수련해도 한 순간 같으면서 땀이 주무루 흘러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나면 삼매경에 들게 되는데 콧물이 아니라 물핀 보다 강한 호르몬이 분비된 것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면 삼매경에 든지 40분 내지 1시간이 경과하면 목에 침이 가득 차는데 6-7회 삼키고 나면 희열속에 접어들어 1시간 정도 지나면 간뇌에서 다이놀핀이 분비되는데 천상 영계에선 이것이 생명의 갈로수라 하는데 현대의학에서는 침은 엔돌핀이라 합니다. 엔돌핀은 물린의 200배 진통 치유능력이 있고 다이놀핀은 엔돌핀의 700배 진통 치유능력이 있는데 다이놀핀이 분비되면 모든 암세포도 일순간에 소멸되고 망가진 세포가 재생된다는게 영계의 메시지인데 현대의학계에서 포기한 시한부 암환자들에게 천의선도를 전수하고 수련시키다보니 100여명이 넘게 정상으로 회복되어 10년이 지났는데도 건강하게 살고 계시고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평생두통, 위하수, 전립선 이상

자, 요실금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천의선도를 전수시키고 통증부위에 생명의 에너지를 1주일에 한번 씩 몇 차례 주입시켜 주었더니 정상으로 회복된 분이 2000여명이 넘는데도 재발된 분이 한분도 없는 것이 30년 체험정성입니다.

천의선도를 오늘까지 전수시키고 있는 것은 20대 중반 아가씨가 나면서부터 뇌성마비로 수족이 뒤틀린 장애인이 신체비관을 하고 있기에 위로삼아 천의선도를 전수시켰더니 1년 반이 되면서 오른손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2년이 지나면서 왼손과 오른발이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신화 같은 기적이 (천의) 하늘의 의술입니다.

이러한 신비한 대체의학을 사장 시킬 수가 없어 내 나이가 79세 인데, 나의 의식이 생활할 때 이 세상에 남기고 가고 싶어 천의선도는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이란 책자를 발간해서 천하제일의 명의를 양성해서 부처님 뜻으로 큰 봉사하며 살고자 이글을 광고합니다.

독자여러분 1박2일간에 맥박, 경락도 모르는 분이 천하제일의 명의를 가진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절대로 믿으시고 체험해 보십시오. 이것이 천의선도의 영력전수(도력전수)입니다.

몸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몸을 편히 해주고, 마음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마음을 편히 해주며 큰 봉사하며 살고 스님, 처사님, 보살님, 종교지도자님, 한의사님, 양의학 박사님도 초대합니다.

- 전 수 장 소 :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489-1
■ 전수참가금 : 일금 100만원 (특전 - 천하제일의 대체의학 50만, 천문을 열어나 2만원, 매선침 20만원 증정)
■ 전 수 과 정
· 1차 : 천문을 열어드림 / · 2차 : 천의선도 수련법 시행
· 3차 : 치료법 실습강의 / · 4차 : 환신 받고 / · 5차 : 선단제조법 강의
· 6차 : 사면권부여식 (빙의된 신을 천상으로 보낼수 있는 능력 부여식)
· 7차 : 치료법 2차 실습 마치고 종강
■ 전 수 일 시 매 주 금요일 오후2시 - 토요일 오전 종강
■ 저 서
· 1971년 팔괘비전 열역신서 / 1990년 사상의학 8상체질분류법
· 1994년 천명전수 천의선도 / 2000년 천문을 열어나
· 2006년 천의선도는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

영계의 메시지 - 이 지구상에 인구가 70억이 될 때, 원인모를 질병이 인명을 휩쓸고 갈터인데 천의선도 영능자를 양성해서 인명을 구하라는 천명을 받고 전수시키고 있습니다.

삼봉(김영생) 합장 전화 010-4933-4528
은행계좌번호 : 하나은행 382-810082-33207 김영생 (입금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